

만주족의 정체성과 “한화” (漢化) 이론에 대한 서구 학계 신간 소개

피터 윤 고구려연구재단

2100 여년 지속된 중국 역대왕조 역사의 마지막 장이며 또한 그 중 가장 번영하였던 제국이었던 청나라의 주체가 중국인(한족)이 아닌 만주(소위 중국에서 말하는 東北三省)에서 흥기한 만주족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56개 민족 중 한족과 장족 다음으로 인구가 천만에 이르는 만주족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이전의 역대 한족왕조 그리고 정복왕조들과는 어떻게 달랐을까? 만주족은 과연 한족에 동화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만의 독자적 민족성과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만주족의 청나라가 어느 한족 왕조보다도 성공적으로 내륙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하고 근 300년 동안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러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만주족의 정체성 문제이다. 그런데 기존의 중국사 연구자들은 대부분 만주족의 정체성을 단순하게 한족의 타자(the Other)로서만, 즉 만주족은 한족이 아니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만주족의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관심과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이전에 청대 만주사 전공자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이 한족 문인에 의해 한자로 쓰인 기록이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특히 북

방민족이 세운 소위 정복왕조에 관한, 역사서술은 은폐, 전유, 왜곡 그리고 과장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청나라의 정치·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통치자 계급인 만주족의 고유 전통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지조차도 종종 외면당하였고 대다수의 청사 연구자는 만주어나 만주 문화를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많은 만주어 문서를 포함한 청대 기초자료인 당안(檔案)이 학자들에게 공개되었고, 서구의 새로운 학문적 이론과 개념이 도입되면서 만주와 청사 연구를 촉진하였으며 중국, 만주, 한족, 국가, 민족 등의 개념을 새로 재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한화(漢化, sinification or sinicization)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청나라의 “만주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연구 성과가 연이어 출판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서 만주족의 정체성과 청나라 통치에 나타나는 내륙아시아 문화와 전통에 초점을 맞춘 Rawski, Crossley, Elliot, 그리고 Rhoads의 저서가 어떻게 기존의 한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북방민족(즉 만주족)의 정체성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만주족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학자들이 한족 중심적 민족주의 사관이 묘사

한 일방적이고 부분적인 (그리고 종종 부정적인) 만주족의 모습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만주 제국의 역사를 한화라는 단순한 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이민족이 소위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되며,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영토와 인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민족의 한화가 필요한 요건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만주족의 성공은 “한화”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앞선” 중국이 “야만”적인 소수 이민족(만주족)에 의해 정복되고 통치되었다는 역사적 수치감을 만회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중국 학계는 일반적으로 몽골의 원 제국이 중국에서 “불과 100여년” 만에 멸망한 것은 몽골인들이 “한화”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비교해서 거의 300년 중국을 지배한 만주족의 정치적 성공은 그들이 중국적 (혹은 신유학적) 정치이념에 기초한 정권을 세우고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여 한족 엘리트 계층의 지지를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학자들 역시 청나라의 통치는 만주족이 한족 문화의 후원자로 나서면서 한족과의 갈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Duara 1996, 49-50),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와 그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와 문화에서 권력을 부여받은 만주족 엘리트 계급은 궁극적으로 한족과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인”으로 변형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1800년 이후에는 만주족과 한족 간의 차이가 사라졌고, 19세기 서구의 침략을 받은 중국왕조(즉 만주 제국)가 소수의 이민족 지배 아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한화 이론은 중국의 역사가들이 전근대 중국의 “문화주의”(culturalism)에서 20세기 민족 국가로의 “자연스러운 역사적 전개”를 서술할 때 만주족을 포함한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체로 무시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미 한화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하는 만주족에게 19-20세기 중국 수난 시대의 통치자로서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해 중국의 권리와 인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씌우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견해도 볼 수 있다.

일찍이 메리 라이트(Mary Wright)는 1860년대 무너져 가던 청나라를 다시 50년간 더 존재시킨 원동력은 “유교”의 원칙을 지향하는 만주족과 한족의 공동 대응이었다는 논지를 폈는데 이는 적어도 중국근대사 수난의 모든 책임을 만주황실과 만주족에 돌린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었다. 라이트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만주조정이 더 이상 만주-한족간의 차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면서 만주와 한족 엘리트간의 정치 문화적 “혼합”(“Sino-Manchu amalgam”)으로 인하여 이들 민족 간의 차이는 무의미해지고 (“irrelevant”) 태평천국의 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1957; 1968, 21-23). 그런데 여기서 만주족의 청나라를 전통 유교의 정치구조와 틀 안에서만 본 라이트의 논지는 유교적 전통의 중국과 근대 서양의 충돌 (혹은 서구 침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China's Response to the West)) 이라는 이분법적 이론으로 확대되며, 이 과정에서 만주족의 정체성은 물론 청나라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만주 제국이라는 역사적 사실도 가려지고 말았다.

아직도 서구의 대부분 중국사 전공자들이 별 비판 없이 따르는 한화 이론의 대변자로는 何炳棣(Ho Ping-ti)를 들 수 있다. 그는 중국사에서 청나라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로 영토의 팽창, 인구의 증가, 정복왕조의 성공적인 정권,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발달, 그리고 물질적 문화와 예술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만주족의 청 제국이 성공한 비결을 체계적인 한화 정책에서 찾고 있다(Ho 1967, 191). 그런데 何炳棣의 이러한 한화 이론의 내면에는 한족 중심의 근대 국가주의 사관과 한족의 우월성이 배어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한화 이론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주와 만주족 중심의 역사 연구를 주장하는 몇 학자들의

도전을 받게 된다. 에벌린 로스키(Evelyn Rawski)는 何炳棣의 견해가 근대 민족주의 사학에서 비롯된 그릇된 한화 이론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Rawski 1996; 1998, 7), 한족의 정체성 역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서구 종족 개념의 자극을 받아 한족을 황인종의 대표 민족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형성되었으며, 한족 중심의 한화 이론으로는 결코 만주족이 세운 청이라는 대제국의 건설과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녀는 한화 이론의 대안으로 “만주족 중심의 관점”(a Manchu-centered view)으로 접근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는 청나라의 제국 형성과 운영은 만주족과 다양한 내륙아시아 민족의 문화적 연결성, 그리고 제국 내의 한족 지역과 비한족 지역 통치에서의 차별성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awski 1996; 1998). “중국(즉 “한족”) 중심적 청나라 역사 연구로부터 탈피”하자는 (“decentering of China”) 로스키의 주장에 何炳棣 등은 반박하지만(Ho 1998) 이러한 논쟁은 “한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직도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사관 입장에서 중국사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청나라는 단순히 “중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역대 한족 문화권의 영역이나 한족 왕조의 경계를 훨씬 넘은 것이다. 중국 역대 왕조의 정치적 통치 영역은 시대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있었지만, 주지하듯이 한족이 세운 왕조는 소위 중원에 국한되어 북으로는 만리장성을, 서로는 신강(新疆)과 티베트의 경계를 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서 청나라는 근대 초기의 가장 크고 오래 존재한 다민족 제국이었다. 즉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반은 한족이 아닌 만주족이 통치하던 청나라 시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국’이 아닌 만주제국에 편입된 것이며, 이러한 확장도 18세기에 이르러야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몽골, 티베트, 신강 그리고 만주의 광활한 영토와 민족들을 지배한

만주 황실은 한족이 거주한 중국(즉 중원)지역을 제국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한 부분(물론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었지만)으로 보고 있었다. 진(秦)나라 이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통일된 중국 왕조사”를 서술하려고 하는 중국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사관에서는 명나라의 통치 밖에 놓여 있던 몽골, 티베트, 신강, 만주 등의 영토와 그곳에 거주한 민족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청나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된 것을 당연시하지만 그 ‘이양’과정은 실로 복잡하였다(Elliot 2000). 청제국의 일부였다가 유일하게 중국과 분리하여 독립된 민족국가로 성장한 몽골국(이전의 몽골인민공화국)을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망각하고 있는 (혹은 망각하려고 하는) 것은 몽골국의 독립이 소위 “중국”으로부터가 아니라 만주 제국으로부터 쟁취하였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몽골과 연해주지역을 제외한 거대한 만주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한족 중심의 근대국가인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사실이야말로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당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청국의 황제들은 황권을 정당화하는 국가 의례와 개인 차원의 종교에서도 한족 문화와는 의도적으로 다른 “만주족” 황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로스키는 만주족이 한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몽골, 티베트, 만주 그리고 한족 등 다양한 민족과 지역에 각각 특정한 그리고 차별된 통치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었고, 바로 이점이 만주 제국 건설과 유지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말한다(Rawski 1998). 또한 청나라의 “중원” 통치는 중국식이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변경”지역의 실상은 매우 달랐다. 중국에서의 만주 통치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이었다면 변경의 통치는 간접적이며 “봉건”적이었으며 다른 유라시아의 제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원의 한족과 변경의 “소수민족”간의 정치와 종교적

갈등을 보면 청나라의 통치가 얼마나(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즉 청의 변경지역은 소위 ‘중국’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만주 황제와 직접 연결되었으며 실제로 청대 변경의 통치에는 한족 출신 관료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다(Farquhar 1978, 5-34). 원제국의 몽골 통치자들처럼 청대의 만주족은 그들과 피지배자(한족)간의 차별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 법률,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특권을 누렸다. 이전의 페어뱅크(John K. Fairbank)와 何炳棣 등 그리고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주족이 漢(族)화되거나, 청나라가 단순히 명나라의 통치 이념과 제도를 모방하거나 채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더 나아가 파멜라 크로스리(Pamela Crossley)는 청나라를 중국사의 일부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다민족제국인 청나라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로스리는 1990년 저서에서 18세기 청나라 지방에 주둔하던 기인(旗人) 연구를 통해서 만주족의 정체성이 청나라 시기만이 아니라 청나라가 무너진 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녀는 “만주”라는 이름이 1635년 청 황제인 홍타이지(太宗)에 의해 공식 선포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다루는 거의 모든 저서와 논문에 빠짐없이 인용되는 사료가 바로 1635년 10월 20일 홍타이지의 유지(諭旨)인데 여기에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구문에는 원래 만주, 하다, 올라, 여허, 그리고 호이파 등의 이름이 있었다. 요즘 무지한 자들이 왕왕 [우리를] “주션”(여진, Jurchen)이라고 부르는데, “주션”이라는 이름은 시보와 차오메르간 부족의 후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구문과는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구문은 만주라는 이름을 세웠는데 그 계통은 오랫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다. 앞으로는 모든 이가 우리 구문을 “만주”라는 원래 이름으로만 부르고 기존의 천한 이름을 쓰지 말라.

諭曰 我國原有滿洲哈達烏喇葉赫輝發等名. 向者無知之人 往往稱爲諸申. 夫諸申之號 乃席北超墨爾根之裔 實與我國無涉. 我國建號滿洲 統緒綿遠 相傳奕世. 自今以後 一切人等 止稱我國滿洲原名 不得仍前妄稱 (『태종실록(太宗實錄)』 (清實錄) 25:19b-20a).

위의 인용문에서 한자 “국”(國)은 만주어로 “구룬”인데, 문제는 이 단어가 국가, 민족, 나라, 인민, 심지어는 조정까지의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로스리는 홍타이지가 새로운 사회정치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유지를 내렸다고 보고 여기서의 “구룬”은 결코 민족의 개념이 아닌 정치적 국가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로스리는 또 만주, 몽골, 조선, 한족 등 여러 부족(또는 민족)들이 정치적 성격을 가진 팔기제도(八旗制度)에 편입되었는데, 기인으로서의 문화적 유사성을 토대로 만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었기에 초기의 인식과 작용은 미약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특히 雍正(1722-35)과 乾隆(1735-96) 황제는 쇠퇴하는 “만주고유의 방식”(“The Manchu Way”)이라는 문화적 이상(理想)을 쇄신하기 위해 혈연관계 중심의 민족 혹은 종족이라는 요소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만주”와 “기인”이 동일시되고 ‘만주’라는 강한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크로스리에 의하면 만주족의 정체성은 원래 본질적으로 ‘민족적’(ethnic)인 것이 아니라 국가(즉 청제국의 조정)가 만들어낸 ‘정치적’(political) 산물이었다. 그리고 1850년에서 1865년 사이에 중국을 휩쓴 태평천국의 난에서 반란군이 만주족을 한족의 적으로 규정하여 난징과 항조우 등지의 만주족 지역사회에서 학살을 자행하자 만주족의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1911년 신해혁명 이후 만주족에게 박해가 심해되자 더욱 내면화되고 강화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크로스리의 주장처럼 만주족의 민

족정체성이 18세기에 시작해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성립된다면 청대 전반기에는 만주족의 ‘민족 담론’이 있을 수도 없고 로스키가 주장하는 만주 중심적 청사 연구 역시 불가능할지 모른다. 여기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마크 엘리엇(Mark Elliot)인데 그는 만주족이 비록 본래의 언어도 없고 후에는 그들만의 독립된 영토와 문화도 사라지기 시작하지만 한족과 구별되는 그들의 정체성은 꾸준히 존재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만주족이 한족의 문화를 수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곧 한족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크로슬리와는 달리 엘리엇은 17세기 초 팔기제도가 성립되면서 이미 만주족의 정체성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2000, 33-34). 엘리엇은 청나라 시기 만주족의 정체성과 팔기제도는 서로 보강하는 작용을 하였다고 하며 크로슬리가 만주의 정체성을 청 조정의 입장에서 위로부터 내려다보았다고 한다면 엘리엇은 팔기제도와 기인의 입장에서 아래에서 올려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엘리엇은 위에 인용한 홍타이지의 유지에 나오는 “구륜”이 정치적인 호칭이 아닌, 몽골, 한족, 조선 등에 대비되는 소위 “주선 구륜”의 민족 통합을 선언하는 대표 명칭으로 보고 있다(2001, 71).

엘리엇은 상호 대립되는 만주족의 한화 이론과 내륙아시아 문화론을 검토하여 만주족 청제국의 정치적 성공을 그들이 중국 정치제도에 적용하면서 동시에 한족과의 분리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두 가지 요소에서 찾는다. 즉 만주족의 정체성은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제도였던 팔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팔기제도는 만주족의 정체성과 주권을 정의하고 제도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것이 300년에 가까운 만주 제국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팔기제도의 중요성은 내륙아시아에서의 국가형성 과정을 연구한 니콜라 디코스모(Nicola Di Cosmo)도 주목하고 있는데, 그는 소위 초원제국

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 만주제국의 정치적 성공을 만주 조정이 팔기제도라는 군사 관료적 구조를 통해 만주족 귀족의 역할을 제도화함으로써 귀족층 수의 급성장을 막고 그들의 분권적 경향을 무력화한 것에서 찾고 있다(1999, 37).

청나라의 통치는 한화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의 전통적 유교 정치 제도와 논리에도 근거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였던 것은 하나의 구별된 민족 집단으로서의 만주족이 대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이분화된 정치체제에 그 기반을 두었다는 점이다. 엘리엇은 이러한 정복-통치 민족으로서의 만주족의 특성을 “민족주권”(ethnic sovereignty)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족주권 개념에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제국 질서의 정상에 위치한 만주황제의 지위, 대다수 한족을 통치하는 이민족의 중국 정복, 그리고 정복자들 자신의 고유문화 보전 등의 요소가 있으며,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차별을 유지하는데 작용하였고, 만주족 같은 소수 이민족의 한족 통치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2001, 4-6).

다시 말하자면 엘리엇은 만주족들이 중국 문화에 동화하고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으며 주지하다시피 만주족들은 중국어로 말하고 쓰며 점차 그들 고유의 문화를 잊었다. 그러나 정체성은 단순히 문화를 통해 나타나거나 혹은 문화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청 조정은 만주족이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지만, 적절한 시기에 팔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만주족의 민족주권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족과 만주족의 문화적 차이는 좁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민족적 차이는 청나라 조정의 노력에 의해 강화되고 있었다. 즉 만주족은 “문화적 일관성의 부재”(cultural incoherence)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적 결합력”(ethnic coherence)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Elliot 2001, 17). 만주족 정체성의 원천이며 기반이 되는 팔기제도에 청 조정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

가는 18세기 청나라 재정의 약 4분의 1이 총 인구의 2 퍼센트에도 채 미치지 않는 기인(旗人)들을 위해 배정된 것에서 볼 수 있다. 단순한 문화적(즉 한화)이론보다는 엘리엇가 보여주는 민족성(ethnicity)의 개념은 문화적 동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주족이 한족과 구별된 민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더 넓은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크로슬리와 엘리엇가 19세기 이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에드워드 로드스(Edward J. M. Rhoads)는 청대 말기 특히 20세기 신해혁명 전후 시기의 만주족 정체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우선 만주족이 한화된 것처럼 그와 대비되는 한족의 만주화도 물론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만주족이 한족들에게 강요한 변발의 머리양식, 관료들의 복장, 그리고 조정에서 공식어로 쓰인 만주어 등을 꼽는다. 하지만 로드스는 만주족의 “한화”도 한족의 “만주화”도 모두 궁극적으로 두 민족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만주족들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물론 문화적 차별성도 계속 유지하였다고 강조한다(2000, 52-63). 로드스 역시 팔기제도와 만주족의 정체성간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는데 그는 만주족(즉 기인)을 일본의 사무라이와 유사한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세습적 군인 계급”(occupationally as a hereditary military caste)으로 보고 이 계급이 20세기 초 중국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1920년대 중반에 만주족이라는 민족으로 변형되었다고 한다(2000, 289-91). 이는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이 1950년대 초에 만(주)족을 “청대 기인의 후예”라고 정의한 것과는 상통하는 것이다(Rhoads 2000, 278).

로드스는 만주족(기인)이 청 황실에 3세기 간의 변함없는 충성을 다한 것에는 그들의 한족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고, 20세기에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는 만주족에게 계속되는 시련의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적 왕조 정치체제를 무너뜨린 신해혁명을 비교적 평화로운 정치권력의 이양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서 실제로 적지 않은 만주족들이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학살당하고 차별과 압박에 시달렸다(Roades 2000, 190-205).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주족들이 이러한 차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집착하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기인들은 19세기 말에 팔기제도의 소속에서 벗어나 일반인으로 등록될 기회가 주어졌으나 거의 대부분은 팔기제도에 남아 정체성을 유지하고 중국 한족과 확실히 구별되는 만주어의 다음절(多音節) 성과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물론 청나라가 망한 후에 만주족은 한족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었고 ‘만주족’이 가난과 단순노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많은 만주족들은 그들의 성을 한족 방식의 단음절(單音節)로 바꾸며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감추게 된다. 로드스는 만주족이 비록 그들의 민족성을 숨기기는 했으나 결코 잃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나라의 팔기제도에서 생성되고 강화·유지된 정체성으로만 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로드스는 만주와 한족 사이의 안정된 관계 유지를 만주 제국 생존의 관건으로 보고 조정이 만주-한족 차이(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신해혁명을 자초하였다고 본다(Rhoads 2000, 10).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서술은 소위 ‘중화민족다원일체’(中華民族多元一體)의 틀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일괄적으로 중국을 지배한 모든 민족들을 역사과정에서 ‘융합’되어 중화민족의 일원을 구성한 주체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중국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민족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국가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한족이 정치적·지역적 기반이 없는 소수민족을 지배하는 소위 “한족” 중심의 국가인 것이며 이 한족 중심주의가 중국의 역사서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서

구에서의 중국(한족)중심적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최근 몇 년간의 서구 학계 연구 성과들이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중국 한족을 지배한 북방의 정복민족들이 한족 왕조의 정치 이념과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해서 한족이 된 것은 아니었고, 또 그들의 문화적 동화를 한화와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화이론은 그 ‘한화’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중국’ 혹은 ‘중국문화’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해 왔고 계속 변하고 있는 모호한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기존의 ‘한화,’ ‘문화변용’(cultural adaptation), ‘동화’(assimilation) 등의 이론과 용어로는 만주족의 정체성은 물론 만주제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WORKS CITED

『청실록(淸實錄)』. 1986. 北京: 中華書局.

Crossley, Pamela K. 1990. *Orphan Warriors: Three Manchu Generatio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rossley, Pamela K. 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rossley, Pamela K. and Evelyn S. Rawski. 1993. "A Profile of the Manchu Language in Qing Histo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3.1: 63-102.

Di Cosmo, Nicola. "State Formation and Periodization in Inner Asian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 1-40.

Duara, Prasenjit. 1996. "De-constructing the Chinese Nation." In Jonathan Unger, ed., *Chinese Nationalism*. London: M. E. Sharpe.

Elliot, Mark C. 2000. "The Limits of Tar-

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Journal of Asian Studies* 59.3: 603-46.

Elliot, Mark C. 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Farquhar, David M. 1978. "Emperor as Bodhisattva in the Governance of the Ch'ing Empi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 5-34

Ho, Ping-Ti. 1967. "The significance of the Ch'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26.2: 189-195.

Ho, Ping-Ti. 1998. "In Defense of Sinicization: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Journal of Asian Studies* 57.1: 123-155.

Rawski, Evelyn S. 1996. "Presidential Address: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829-850.

Rawski, Evelyn S. 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the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hoads, Edward J. M. 2000. *Manchus &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Wright, Mary C. 1957.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The Tung-Chih Restoration, 1862-187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Wright, Mary C. 1968. "Introduction: The Rising Tide of Change." In Mary C. Wright, ed., *China in Revolution: The First Phase, 19*

00-1913, 1-63.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부록] (1990년 이후)서구의 만주 청사
연구 성과 발췌 목록

Bartlett, Beatrice S. 1991. *Monarchs and Ministers: The Grand Council in Mid-Ch'ing China, 1723-182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ays, Daniel H., ed. 1996. *Christianity in China: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Benedict, Carol. 1996. *Bubonic Plague in Nine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Berger, Patricia. 2003. *Empire of Emptiness: Buddhist Art and Political Authority in Qing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Bernhardt, Katherine. 1992. *Rents, Taxes, and Peasant Resistance: The Lower Yangzi Region, 1840-195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Bernhardt, Kathryn. 1999. *Women and Property in China, 960-194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Bray, Francesca. 1997. *Technology and Gender: Fabrics of Power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ow, Kai-wing. 1994. *The Rise of Confucian Ritualism in Late Imperial China: Ethics, Classics, and Lineage Discours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hu, Samuel C. and Kwang-Ching Liu, ed. 1994. *Li Hung-Chang and China's Early Modernization*. Armonk, New York: M. E. Sharpe.

Cohen, Paul A. 1997. *History in Three Keys: The Boxers as Event, Experience, and My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rossley, Pamela Kyle. 1990. *Orphan Warriors: Three Manchu Generatio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rossley, Pamela Kyle. 1997. *The Manchus*. Cambridge, Mass.: Blackwell Publishers.

Crossley, Pamela Kyle. 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unstan, Helen. 1996. *Conflicting Counsels to Confuse the Age: A Documentary Study of Political Economy in Qing China, 1644-1840*.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Elliott, Mark C. 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Elman, Benjamin A. 1990. *Classicism, Politics, and Kinship: The Ch'ang-Chou School of New Text Confucianism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lman, Benjamin A. 2000.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sherick, Joseph and Mary B. Rankin, ed. 1990. *Chinese Local Elites and Patterns of Domin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to, Shinkichi and Harold Z. Schiffrin, ed. 1994. *China's Republican Revolution*.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 Gardella, Robert Paul. 1994. *Harvesting Mountains: Fujian and the China Tea Trade, 1757- 193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via, James L. 1995.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Hostetler, Laura. 2001. *Qing Colonial Enterprise: Ethnography and Cartography in Early Moder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wland, Douglas. 1996. *Borders of Chinese Civilization: Geography and History at Empire's En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uang, Philip C. 1996. *Civil Justice in China: Representation and Practice in the Qi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eenan, Barry C. 1994. *Imperial China's Last Classical Academies: Social Change in the Lower Yangzi, 1864-191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m, Hodong. 2004. *Holy War in China: The Muslim Rebellion and State in Chinese Central Asia, 1864-187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 Dorothy. 1994.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uhn, Philip A. 1990. *Soulstealers: The Chinese Sorcery Scare of 176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onard, Jane Kate and John R. Watt, ed. 1992. *To Achieve Security and Wealth: The Qing Imperial State and the Economy, 1644-1911*. Ithaca, N. Y.: 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Leong, Sow-Theng, Tim Wright and G. William Skinner, ed. 1997. *Migration and Ethnicity in Chinese History: Hakkas, Pengmin, and Their Neighbo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ipman, Jonathan Neaman. 1997. *Familiar Strangers: A History of Muslims in Northwest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Mann, Susan. 1997. *Precious Records: Women in China's Long Eighteenth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ks, Robert B. 1997. *Tigers, Rice, Silk, and Silt: Environment and Economy in Late Imperial South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ward, James A. 1998. *Beyond the Pass: Economy, Ethnicity, and Empire in Qing Central Asia, 1759-186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Naquin, Susan. 2001. *Peking: Temples and City Life, 1400-19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aquin, Susan and Chun-fang Yü, ed. 1992. *Pilgrims and Sacred Sites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ine, S. C. M. 1996. *Imperial Rivals: China, Russia, and Their Disputed Frontier*. Armonk, N.Y.: M. E. Sharpe.
- Polachek, James M. 1992. *The Inner Opium War*. Cambridge, Mass.: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Harvard University.
- Pomeranz, Kenneth. 1993. *The Making of a Hinterland: State, Society, and Economy in Inland North China, 1853-193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wski, Thomas G. and Lillian M. Li, ed. 1992. *Chinese History in Economic Perspectiv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awski, Evelyn S. 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ardon-Anderson, James. 1991. *The Study of Change: Chemistry in China, 1840-19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ynolds, Douglas Robertson. 1993. *China, 1898-1912: The Xinzheng Revolution and Japan*. Cambridg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Sommer, Matthew H. 2000. *Sex, Law, and Socie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pence, Jonathan D. 1996. *God's Chinese Son: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of Hong Xiuquan*. New York: W.W. Norton.

Starr, S. Frederick, ed. 2004. *Xinjiang: China's Muslim Borderland*. Armonk, NY: M.E. Sharpe.

Struve, Lynne A. 1998. *The Ming-Qing Conflict, 1619-1683: A Historiography and Source Guide*. AAS Monograph 56.

Struve, Lynn A., ed. 2004. *The Qing Formation in World-Historical Tim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Thiriez, Régine. 1998. *Barbarian Lens: Western Photographers of the Qianlong Emperor's*

European Palaces. Amsterdam: Gordon and Breach.

Weller, Robert P. 1994. *Resistance, Chaos, and Control in China: Taiping Rebels, Taiwanese Ghosts, and Tiananme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Will, Pierre-Etienne. 1990. *Bureaucracy and Famine in Eigh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Will, Pierre-Etienne, Roy Bin Wong and James Z. Lee. 1991. *Nourish the People: The State Civilian Granary System in China, 1650-1850*.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Wilson, Thomas A. 1995. *Genealogy of the Way: The Construction and Uses of the Confucian Tradition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Wong, J. Y. 1998. *Deadly Dreams: Opium, Imperialism, and the Arrow War (1856-1860)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ng, Roy Bin. 1997.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Zarrow, Peter G. 1990. *Anarchism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